재가자 수행열기, 올 여름 뜨겁다

정토회 등 수련모임 인원 증가
각 단체 집중수행 개최


정토회의 명상수련 모습. 매회 30여명 이상이 참여할 정도로 인기가 높다.

무더운 여름을 맞아 재가자들을 위한 다양한 집중수행과정이 진행된다. 간화선부터 위빠사나 등 수행법을 익히고, 스님과 함께 어울려 공부하는 자리도 마련돼 불자들의 발길을 이끈다. 특히 청년들을 위한 수행이 높은 인기를 끌고 있어 눈길을 끈다.

일반인들이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수행분야는 명상이다. **정토회**(지도법사 법륜)는 7월 24일부터 7월 28일까지 수행도량 문경 정토수련원에서 법륜스님과 함께하는 명상수련을 개최한다. 청년 재가불자를 대상으로 하는 명상수련은 2012년 법륜 스님의 힐링캠프 출연 이후 매회 30여 명 이상이 참여하고 있다. 정토회 문경수련원 관계자는 "명상수련의 경우 참가자 대부분이 청년들이며 불자가 아닌 이들의 비중이 높다. 명상 수련을 시작으로 백일출가까지 불교를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초기 10여명으로 시작했지만 매년 소폭이나마 참가자가 계속 늘고 있다"고 소개했다. (054)571-6031

월정사(주지 정념) 단기출가도 최근 연령별로 세분화돼 진행 중이다. 특히 7월 30일부터 8월 5일까지 제3기 청년마음출가학교는 15세부터 35세까지 청년들을 대상으로 열린다. 지난 겨울 2기에 42명 참가한데 이어 올해는 접수를 시작한 2일 만에 20여 명이 신청했다. (033)339-6800

남원 실상사(주지 응묵) 재가불자 여름학림 또한 간화선 수행을 할 수 있는 곳으로 인기가 높다. 2008년 처음 시작된 재가불자 여름학림은 올해로 10년차를 맞이 했는데, 시간이 부족해 1~2년 과정 참여가 힘든 재가자들이 모여 시작한 수행모임에서 출발했다. 현재는 4박 5일간 집중적인 교육이 진행된다. 실상사 주지 응묵 스님도 "스님들과 함께 단기간 집중수행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호응이 높다"고 설명했다.

7월 26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되는 1차 여름학림에서는 초기불전연구원 지도법사 각묵 스님이 강사로 나서 〈청정도론〉에 나타난 들숨과 날숨에 대한 마음챙김에 대한 이론 및 좌선수행을 지도한다. 2차 여름학림은 독특하게 교육 형식으로 진행된다. 前불교중앙박물관장 흥선 스님이 '그림으로 읽는 불교문화 이야기'를 통해 사찰 탱화와 벽화 등에 숨겨져 있는 다양한 불교설화를 전한다. (063)636-3031

이같은 열기속에 다양한 수행자리가 마련되고 있다. **동국대 국제선센터**(선원장 수불)는 8월 10일부터 8월 16일까지 도심에서 간화선 집중수행을 개최한다. 국제선센터는 스님과 일반인이 함께 간화선 수행을 할 수 있는 곳으로 희망자에 한해 기숙 형식을 통해서도 방부를 들일 수 있다. 지도법사는 수불 스님으로 미수료시 재참가도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02)2260-3891

불교인재원(이사장 엄상호)이 진행하는 생활참선 프로그램도 눈여겨 볼만하다. 7월 21일까지 진행되는 5기 생활참선은 해인사 백련암 감원 원택 스님을 증명법사로 매회 마다 재가자 생활참선에 대한 이론과 실습과정이 병행된다. 심화코스 이수 후에는 명상지도사 2급 자격이 나오며, 하반기에는 6기 과정도 개설된다. 박희승 불교인재원 이사는 "함께 수행도 하지만 각 가정의 생활 속에서 각자 참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됐다"고 말했다. 1661-1108

위빠사나의 경우 해외 고승인 우실라 스님이 직접 지도하는 자리도 열린다. **홍천 건봉사 파욱선원**은 7월 10일부터 10월까지 총 8차에 걸쳐 사찰 내 파욱선원에서 우실라 스님 초청 집중수행을 개최한다. 수행에서는 아나빠나사띠(들숨날숨 알아차림) 외 사마타 수행에 대한 이론 교육과 실습, 수행인터뷰로 진행된다. (033)433-3847 **노덕현 기자**

초기자본 마련 어려운 '청년'도 OK
서울형MC로 창업·결혼까지 '성공'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성공창업사례 ③ 동대문종합시장 '엠디' 김나현 대표


그림 · 박구원

경제적 압박으로 인해 결혼, 연애, 주택구입, 취미, 출산 등 많은 것을 포기하는 요즘 청년들. 일명 'N포 세대'라고 불린다. 3포 · 4포 · 7포를 벗어나 '포기해야할 것이 무한대'라는 뜻이다. 이 가운데 무담보 · 저금리 대출을 통해 사업은 물론 결혼까지 성공한 청년 사업자 부부가 있어 눈길을 끈다.

주인공은 동대문종합시장에서 의류원단 도소매업장 '엠디'를 운영하는 김나현(33) 씨와 그 배우자 천민우(35) 씨.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김 씨와 창업의 꿈을 꾸고 있던 천 씨는 현재 월평균 8,000만원 매출을 기록하는 엄연한 '청년 창업자'가 됐다. 비결은 무엇일까. 그 시작에는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의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서울형 MC)'이 있었다.

이들은 2012년 서울형 MC를 통해 창업자금 3,000만원을 대출받았다. 당시 조계종사회복지재단 산하 시설에서 근무하던 김 씨가 남자친구였던 천 씨(현 배우자)에게 서울형 MC를 소개한 것이 계기가 됐다. 천 씨는 원단 도소매업을 시작한지 몇 개월 되지 않아 마땅한 사업장을 마련하지 못했던 상황으로, 서울형 MC를 통해 대출받은 창업자금으로 동대문종합시장 내에 사업장을 열 수 있었다.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기 때문에 초기에는 꽤 어려웠어요. 매장도 없이 창고만 얻어서 출발했으니까요. 하지만 서울형 MC를 통해 대출을 받으며 자재 구입 등 초기 기반 마련에 큰 도움이 됐어요. 이후에도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2013년 결혼까지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빠르게 안정을 찾을 수 있던 것은 서울형 MC의 '1년 거치 상환' 보장 덕분이었다. 1년 동안은 원금을 제외한 이자만 내면 되기 때문에 투자비용이 많은 사업 초기 재정적 부담이 덜했던 것. 김 씨는 "낮은 금리도 장점이지만 첫 1년 동안 거치 상환할 수 있다는 게 큰 도움이 됐다. 경영이 자리 잡은 후 원금을 갚으면 되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에게는 매우 좋은 제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매년 청년 창업자들이 증가하는 추세에서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단순한 자금지원뿐 아니라 청년창업자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가족과 함께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복지콘텐츠를 개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아름 기자**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이란?

소상공인 창업과 경영안정을 위한 무담보 저금리대출사업으로, 사업자의 자활을 돕는 금융지원사업.

▶지원내용은?

이 율 : 고정금리 연 1.8%
대출기간 : 총 5년(1년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자금지원 : 창업자금(최대 3,000만원 이내 자기자금 범위 내 지원)
경영개선자금(최대 2,000만원 이내 지원)
신청절차 : 상담–신용정보조회–서류작성 및 첨부서류 준비–현장실사–선정심의–신용보증재단 금융심사–우리은행 자금지원(대출승인)
신청문의 : 조계종사회복지재단 복지경영부문 (02)723-5101

서울노인복지센터
어르신 직업개발 나서

함께일하는재단과 MOU

서울노인복지센터(관장 희유)는 6월 26일 서울노인복지센터 3층 TOP작은공연장에서 함께일하는재단(이사장 월주)과 어르신 창의 직업 개발 및 교육 훈련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서울노인복지센터는 2004년부터 고령구직자 취업전문기관인 서울시어르신취업훈련센터를 운영함으로써, 서울시민의 활기찬 노년과 직업생활을 지원하고 있다. 함께일하는재단은 2003년 설립한 민간공익재단으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사회양극화 해소에 앞장서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서울노인복지센터와 함께일하는재단은 시범사업을 공동 추진한다. 첫 협력사업으로 '시니어케어매니저 양성교육 및 활동지원사업'을 12월 말까지 추진한다.

서울노인복지센터 관장 희유 스님은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와 함께 신규 직종 개발과 교육 훈련과정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어르신들이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한국전쟁 희생 영령 천도를 바라며"

호국 금강사 제34회
호국영령 위령대재 봉행


6월 25일 열린 위령대재서 불자들이 헌화하고 있다.

조계종 군종교구(교구장 정우)는 6월 25일 한국전쟁 발발 67주년 기념 포천 육군 5군단 호국금강사에서 '제34회 호국영령 위령대재'를 봉행했다. 올해로 제34회를 맞이하는 제5군단 호국영령 위령대재는 국군과 참전국 장병, 또 북한군 및 중공군 전사자까지 포함한 모든 한국전쟁 전사자에 대한 왕생극락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위령대재는 오전 5군단 호국금강사 주지 덕명 군승법사의 집전 하에 천도의식으로 시작됐다. 오후 호국금강사 금강보전에서는 추모법회가 진행됐다.

1984년 위령대재를 시작으로 매년 행사를 지원하고 있는 위령대재 봉행위원장 현성 스님(서울 도선사 조실)은 법어를 통해 "오늘 천도 자리에 초청 받으신 모든 영령들이여, 이 자리에 모인 불제자들은 어느 나라 어느 영령이건 분별하지 않고 오늘 모셨다"며 "진리의 자리에서는 태어남도 없고 소멸 또한 본래 없으니 나고 죽는 것이 다 사라지고 오직 정법의 마음자리만이 본래 실상(實相)이다. 생멸없는 진리의 소식을 들으시고 오직 칠보산 극락세계에 왕생하소서"라며 축원했다.

군종교구 부교구장 승원 스님은 추모사에서 "오늘 위령대재는 우리 후손들이 대한민국의 국민임을 늘 상기하고 자각하며 다시는 한국전쟁과 같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열렸다. 당시 참상을 기억하고 대비하여 남북평화통일을 이루는 초석을 만들기 위함이다"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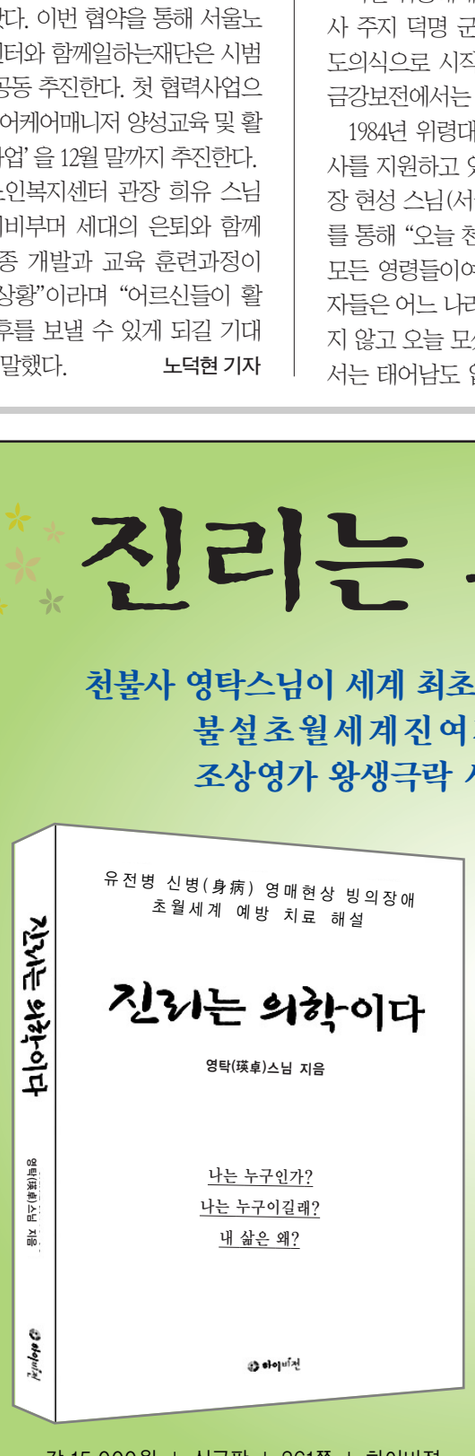
제갈용준 5군 군단장은 봉행사에서 "대한민국의 눈부신 발전과 물질적 풍요는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하였으며, 이 땅의 자유와 평화가 다시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군에 부여된 소임을 충실히 완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위령대재에는 봉행위원장 현성 스님(서울 도선사 조실)과 군종교구 부교구장 승원 스님, 제갈용준 5군단장, 정동호 前5군단장 미망인 구형선 씨, 5군단 예하부대 군승들과 6.25참전용사, 군장병 및 일반불자 등 사부대중 300여명이 동참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진리는 의학이다!

천불사 영탁스님이 세계 최초로 중생제도 대원력 서원을 성취한
불설초월세계진여자성본원력방편보살도!
조상영가 왕생극락 시킬 수 있는 방편 대공개!



불설초월세계진여자성본원력방편보살도는
삼계사생육도에서 고통 받는 중생들의
잠재의식 다겁다생의 업보를 해체 분리
파괴 소멸시켜 해탈하는 초월세계
우주진리법 입니다.

신병(身病), 영매현상, 빙의장애는
완치될 수 있고, 유전병도
예방 치료 됩니다.

전국 대형서점과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하십시오.

값 15,000원 | 신국판 | 261쪽 | 하이비젼

■ 문의 : 천불사 053)624-2272, 053)624-2275

미소조각원

泰煌(태황) : 대한민국 문화재 조각기능 보유자

불사 문의 050-2879-8709
010-3629-8709

